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상생과 나눔의 세상 열렸다

5월 23일, 전국서 연등축제
서울 30만 운집 화합·평화 발원
화려한 연등 장엄등 거리 수놓아

‘허공에서 흰 코끼리를 탄 아기부처님이 나타난다. 천천히 무대 중앙에 위치한 연꽃 아래로 내려온다. 이윽고 연꽃 위에 내려 앉는다.’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5월 23일 서울을 비롯 해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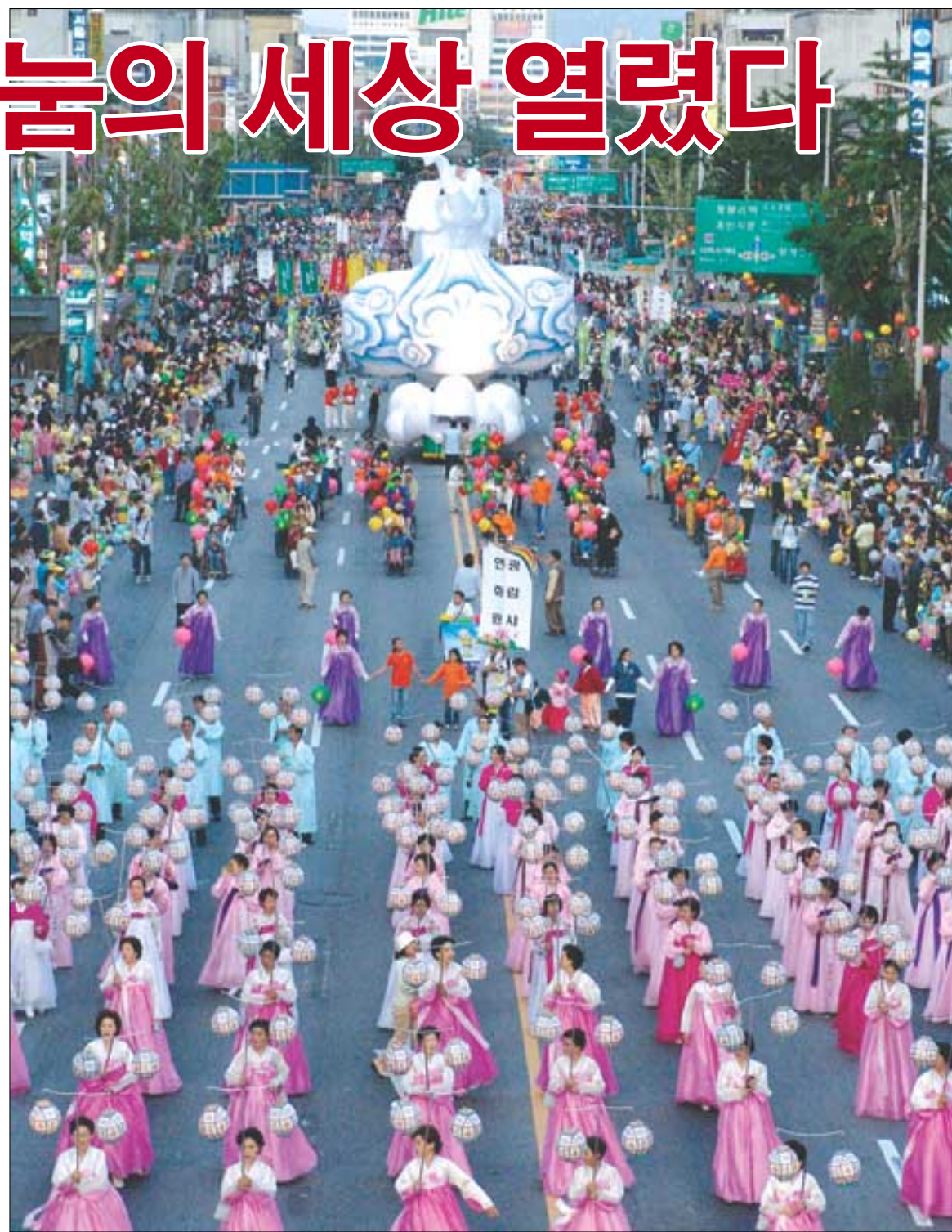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는 허공에서 흰 코끼리를 탄 아기부처님이 땅 위에 놓여있는 연꽃 아래로 내려와 3만여 참석대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법회에서 봉축위원장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서로가 존중하는 상생의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나눔의 세상, 모두가 화합하고 기뻐하는 평화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오후 7시부터 동대문야구장-탑골공원-종각-조계사로 이어진 제등행진에서는 호랑이등, 탑등, 부처님등을 위시해 수백 가지의 화려한 상징등과 10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에 앞서 정오부터 서울 조계사 앞 사거리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에서는 10여 개국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제불교마당과 자원봉사, 자선바자, 문화체험 행사가 열려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 지역엔 연인원 30만 명이 참석한 연등축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전통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연등축제화보 16·17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대문야구장-탑골공원-종각-조계사로 이어지는 제등행진. 수백 가지의 화려한 장엄등과 10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한 달 내내 ‘봉축특집’...금주 48면 발행

‘현대불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봉축 특집’을 연속 발행합니다. ‘현대불교’의 특집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봉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봉축특집 주요 주제

- ▶ 첫째 주 (5월5일자) 나눔의 손잡기
- ▶ 둘째 주 (5월12일자) 오늘의 세계불교
- ▶ 셋째 주 (5월26일자) 禪 수행 열풍을 잇는다

▶ 넷째 주 (5월26일자)

- 각 종단 중점 봉축법어 6면
- 도법 스님의 ‘길에서 맞는 부처님오신날’ 7면
- 불자감소...대안은 새싹포교
- ‘어린이 포교 중요’ 말잔치만 할것인가? 11면
- 긴급전화실문: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주소는? 12면
- 긴급전화실문: 사찰의 새싹포교 외면이유는? 13면
- 좌담: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과제 14면
- 내아이 불자만들기 15면
- 지상중계: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20면
- 부처님 감사합니다 31면
-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봉축 법문 38·39면

■ 봉축화보·연등축제 이모저모 16·17면

현대불교 구독료 전화요금환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취재요? 일주일 동안 나하고 같이 수행하고 대화 합시다

간지 편집상

티 나한

오늘이 똑똑치 못하면 내일도 그렇게 올고갑니다

보성 스님

그림·조태호

보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38, 39면에서 만나세요)

새싹포교, 자원·사람·의욕 ‘3無’

대불어 조사 법회운영사찰 9.6% 본지 설문 “생각없다” 40%

“재원도, 가르칠 사람도, 프로그램도 없다. 필요한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사찰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어)의 ‘전국 어린이법회 현황조사’ 직후 현대불교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대불교 조사는 5월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480개 사찰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불어가 3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3,100여 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294곳(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법회 지도법사(교사) 수는 평균 3.2명이었으며, 법회 참가 어린이가 평균 인원은 29.5명이었다.

현대불교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80개 사찰 중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87개 사찰은 18.1%에 불과했다. 어린이·청소년 인원은 10~30명(32.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조사대상 480개 사찰 가운데 374개 사찰(77.9%)은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개설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필요

하지만 나는 하기 싫다’는 이기적 의식에 대한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불교 조사에서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조사대상 480개 사찰 중 각각 87곳(18.1%)과 59곳(12.3%)이었다. 대불어 조사와 비교해 어린이 법회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어린이·청소년 법회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회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형급 이상 사찰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11·12·13·14·15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548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온 누리에 비치고,
동체대비심이 세상속에 가득하여
생명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눔의 실천으로
기쁨과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총무원장 법장 중앙총회위원장 지 하
교육원장 청화 호계원장 월 서
포교원장 도영

大韓佛敎曹溪宗